

Session 17 염려와 두려움의 극복 (마 6:25-33)

(Overcoming Anxiety and Fear)

I. 두려움 없이 우리의 부르심을 추구해나가기

- A.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자신의 부르심을 어떻게 추구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재정과 매일의 필요와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삶의 목적)을 추구해나가는 방법은 세상이 이를 추구해나가는 방법과는 매우 다릅니다.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 6:25, 31-32)

- B. 이 구절에서의 핵심 단어는 “염려”이며, 이 부분에서 6 번이나 나온다 (25, 27, 28, 31, 34 [2x]). KJV는 염려를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번역했는데, 이는 비 성경적인 결론이 되기 쉬운 표현이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계획을 가지되, 두려움이나 염려를 기반으로 이를 계획해서는 안 된다.

- C. **그러므로:** 이는 19-24 절과의 연결성을 나타내준다. 하늘의 보화를 선택하며 (20 절), 빛 가운데 있는 삶을 살며 (22 절),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24 절)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 (25-34 절). 우리가 이 땅의 재물이 아닌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장 큰 보물로 여기기로 결정할 때 (6:23-24), 우리는 매일의 공급에 대해 전혀 다른 태도로 접근하게 된다 (6:25-34).

- D. 우리의 삶은 영원하며, 이로써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먹을 것들보다 더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다. 먹을 것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힌 삶은 먼저 하나님의 왕 되심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더 큰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 (33 절).

- E.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로 인해 생기는 탐욕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하셨다. 염려는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방해한다.

II. 염려를 거절할 수 있는 4 가지 이유

- A.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이 염려로 물들지 않을 4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다: 우리는 다른 모든 창조물들, 새나 꽃들보다 하나님께 더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26, 30 절);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27 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이다 (32 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충분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34 절).

- B. **첫 번째 이유:** 우리는 다른 모든 창조물들, 새나 꽃들보다 하나님께 더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26-30 절). 예수님께서서는 “작은 존재로부터 큰 것을” 설명하신다. 따라서, 염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않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창조물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께 더 중요하다. 그분은 창조물들에 대해 인간이 다스림으로 땅을 충만하게 하도록 하셨다 (창 1:26-28).

1. **먹을 것:** 새들은 부지런히, 열심히 먹을 것을 찾는다. 새들은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들은 여전히 자연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인간들은 창조계 안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을 사용할 수 있기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 6:26)

- a.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새들이 먹을 것을 공급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만히 있어도 그들을 먹이심을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신다는 진리가 그들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지 않으며, 우리의 물리적인 필요를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됨을 말하지 않는다.
 - b. 새들도 먹을 것을 찾아 나서는데, 하물며 씨앗을 심고, 수확하고,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공급하실 것을 훨씬 더 확신할 수 있다.
 - c. 이 가르침은 사람들이나 새들이 성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2. **입을 것:** 들판의 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들의 백합화”라는 표현은 야생화의 여러 가지 종류를 말한다.

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 6:28-30)

- a. “생각하여 보라”라는 것은 이들로부터 배우라는 말이다. 경작되지도 않고 짧은 시간 살아가는 들꽃들은 사람들이 이들을 위해 수고하고 옷감을 짜서 입히지 않아도 너무도 아름답다. (수고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들판이 되도록 경작함을 말하며, 길쌈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옷을 지음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아름답게 입히시고, 이 아름다움은 부유한 솔로몬의 옷보다도 승한 아름다움이다.
 - b. 이 꽃들은 수명이 아주 짧으며, 요리를 위한 연료로 쓰이기 위해 아궁이에 던져진다. 이 꽃들이 살아남느냐의 문제는 이 꽃들의 수명이 매우 짧기에 이 구절의 핵심이 아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꽃들의 생존의 문제가 아닌, 그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것이다.
 - c. 금방 없어질 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자들인가? 금방 죽고 태워 없어질 꽃들을 큰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공급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
 - d. 여기서의 원리는, 우리는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유지하시는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 C. **두 번째 이유:**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27 절). 우리가 염려한다고 먹을 것이 더 많아지지도 않으며, 더 오래 살 수도 없고, 어떤 일도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한글 KJV: 한 규빗)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마 6:27)

1. 염려는 사람의 수명을 늘려주기보다, 단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2. 한 규빗은 18 인치(45cm) 정도의 길이이다. 키라는 표현은 헬라어 헬리키아(helikia)에서 온 것이며, 사람의 실제적인 키를 말하기도 하고, 수명을 말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번역은 수명을 한 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의 표현으로 번역한다 (NAS, ESV, NIV). 이를 사람의 키로 번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심을 말하는 이 문맥에서 적절하지가 않다.
 3. 우리의 수명과 먹을 것, 입을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는 인간 자신의 능력들보다 위대하다.
- D. **세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이다 (32, 8 절). 염려는 잘못된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 6:31-32)

1.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것에 있다 (마 6:8, 32).
- 8 ...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 6:8)*
2. 우리의 매일의 필요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는 빌 4:6-7; 히 13:5; 벰전 5:7 을 참조.
- E. **네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충분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34 절). 예수님께서는 내일의 문제에 대해 오늘 염려하는 것의 무익함에 대해 말씀하신다.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마 6:34)

1. **한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마다 공급해주실 것을 약속하신다. 이는 한 해 단위의 약속이 아니다.
-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역자주: 매일의) 양식을 주시옵고 (마 6:11)*
2. 내일에 대해 계획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것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3. **괴로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매일의 “괴로움”, 더 문자적으로는 “악함”의 실체에 대해 상기시키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현실적이 될 것을 원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틀림없이 임하게 될 박해들을 이겨나가는 것에 상급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다 (마 5:10-11).
-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 14:1)*
4. 삶의 필수적인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제자들의 삶에 아무런 괴로움이 없을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각각의 날들에는 여전히 “괴로움”이 있게 될 것이다.

III.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

- A.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그분의 왕 되심과 의를 구할 것을 말씀하신다 (33 절). 전심으로 드리는 헌신에 대한 언어는 앞의 19-21, 24 절과 연결되며, 그분은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하늘의 보화를 우선시할 것을 말씀하신다 (22, 24 절).

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 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 6:20-24)

1.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들에 대한 순종을 말하며, 이는 산상수훈의 주요 전제에서 발견할 수 있다 (마 5:20). 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독특한 삶의 형태이며, 이들은 의를 향해 배고파한다 (마 3:15; 5:6, 10, 20; 6:1).
 2. 의의 선물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법적인 위치를 제공하며, 이로 인해 우리가 변화되어 감사함으로 의를 선택하게 될 것의 희망을 부여준다.
- B. 이러한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해 어떤 이들은 마땅히 이 약속이 기근으로 황폐해진 지역과 고난으로 핍박 받는 이들에 대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를 묻곤 한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굶어 죽고 있거나 핍박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그들의 지역에 임한 기근이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 C. 이 구절은 기근이나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 D. 어떤 고통들은 인간의 이기심이나 피조계의 자원을 잘못 운용한 것에 탓을 돌릴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기근과 재난의 모든 원인이 인간에서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신학적인 문제는 이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는 주제가 아니며, 여기서의 초점은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신뢰에 대한 부분이다.
- 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조물에 대해 통치의 권한은 최근의 세대 가운데 남용되어져 왔다. 굶주림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분배에 문제가 있어왔다. 하나님께서는 피조계 안에 충분한 자원을 공급해오셨다.
- F. 이 약속들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다.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몸의 반 이상이 “2/3 세계 (제 3 세계, Two-Thirds World)”에 살고 있으며 “제 1 세계 (서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빈곤으로 정의하는 선 아래의 삶을 살고 있다. 만일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협력해서 구한다면, 그들은 기근이나 핍박으로 고통 받고 있는 동료 성도들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이다 (고후 8:13-15 절).
- G. 우리는 일을 하지 않거나, 책임을 맡지 않거나, 아무런 괴로움이 없거나, 큰 풍족함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염려에서 자유로우며, 매일의 필요에 대해 부족함이 없을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 H. 다음 3 개의 원리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1. 우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일을 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실 것이라는 게으른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살후 3:10). “수단”이나 부차적인 근거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2. 성도들은 다른 이들을 향한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으로 황폐하게 된 지역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사용하셔서 먹이실 것을 약속하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실 것이라는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시는 통로가 되도록 하시는 책임에서 우리를 면제해주지는 않는다.

3. 성도들이라고 해서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겪는 것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그분은 새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지만, 여전히 참새들은 죽임을 당한다 (눅 12:6).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지 않는다.

- I. 부드럽고 고요한 마음은 하나님께 귀중한 것이다. 이는 염려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남을 말한다. 평화의 열매는 첫째 계명이 우리 마음 안에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이다. 물질주의로부터 “거룩하게 떨어져서” 사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충성됨을 세워나가는 일의 일부분이 된다 (마 6:24). 이렇게 사는 것은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 된다. 이는 능동적으로 사랑하고, 순복하며,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염려함도 없이 완전한 평화 가운데 사셨는데, 이는 그분의 눈 또는 시선이 정결하며 빛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마음이 부드러우며 겸손하시다 (수동적이지 않으며). 그분은 항상 마지막을 보고 있으면서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복했는데, 이는 그분의 보화가 땅에 있을 동안의 33년의 일시적인 “그림자”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분의 보화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뜻에 충성되는 것이었다.

4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벘전 3:4)